

번호: PO-EP-052					
제 목	서울소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가정안전실태 조사 A study on the home inju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저 자 및 소 속	홍주희1), 민정원1), 공경애1), 박보현1), 이보은2), 손주현3), 손정희4 1)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3)세이프키즈 코리아, 4)안전실천생활연합회 Juhee Hong1), Jung Won Min1), Kyeong Ae Kong1), Bo Hyun Park1), Bo Eun Lee2), Ju Hyun Son3), Jung Hee Son4)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2)Division of Chronic Disease Surveillanc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SAFE Kids Korea, 4)Citizen's Coalition for Safety				
분 야	역 학 [기타]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b>목적:</b> 안전사고는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있어서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모든 안전사고의 절반이상은 특히 집안 또는 집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0~2002년 3년간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475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6.1%가 가정에서 일어났으며, 그 중 31%는 6~14세 어린이에게서 일어났다고 한다. 가정안전사고는 가정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히 어린이 계층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 발달단계의 특성상 신체움직임이 활발하고 불안하며, 감각을 통해 환경을 인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안전사고예방은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어린이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의 안전실태를 평가하여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전략을 세우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p> <p><b>방법:</b>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보광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2-4학년 학생 모두) 630명을 대상으로 가정안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낙상/미끄러짐, 찔림/베임/끼임, 화재/화상, 중독, 질식, 익수에 관한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위험행위와 위험환경으로 구분되어있고, 어린이들이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은 SAS를 이용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555명이였다 (응답율 88.1%).</p> <p><b>결과:</b> 위험행위에 있어서는, “칼, 포크, 가위에 베인 적이 있다”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마루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가 58.4%, “풍선을 불다가 풍선이 터진 적이 있다”가 58.2%였다. 위험환경에 있어서는,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세제는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있다”가 67.8%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세제는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있다”가 남녀 모두에게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에 “풍선을 불다가 터진 적이 있다”가 가장 많았으나 (60.1%), 여학생의 경우에는 “칼, 포크, 가위에 베인 적이 있다”가 많았다 (62.8%). “크기가 큰 젤리나 사탕 또는 음식을 한 입에 넣은 적이 있다” (P=0.001)와 “냉장고 안에 들어가 보고자 했던 적이 있다” (P=0.002)에서만 성별의 차이로 인한 통계적 유의성이 드러나, 이러한 두 가지 위험행위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유의하게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p> <p>학년별로 구분하면, 성별과 마찬가지로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세제는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있다”가 남녀 모두에게 가장 많았고, 여기서는 통계적 유의성도 보였다 (P=0.014). 2학년에서는 “풍선을 불다가 터진 적이 있다”가 가장 많았고 (59.6%), 3학년에서는 “어른 없이 혼자서 욕조에서 목욕한 적이 있다”(63.9%), 4학년에서는 “칼, 포크, 가위에 베인 적이 있다”(65.3%)가 가장 많아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위험행위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 친구들과 붙어서 장난치며 내려간 적이 있다” (P&lt;0.0001), “계단을 내려갈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려간 적이 있다” (P=0.035), “플러그를 뽑을 때 전깃줄을 잡아당겨 뽑은 적이 있다” (P=0.003), “누워서 음식을 먹거나 뛰면서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 (P=0.031), “크기가 큰 젤리나 사탕 또는 음식을 한 입에 넣은 적이 있다” (P=0.009)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p> <p><b>결론:</b>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있어 중독, 베임, 미끄러짐, 질식, 익수의 위험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종류의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질식의 위험이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단에서의 낙상, 전깃줄 관리사고, 질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대상의 특성에 맞는 가정안전사고 예방활동 방향 및 접근 전략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p>					